



치즈원료의 수입을 반대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사 권 오 겐

우리나라의 치즈시장은 84년부터 급격한 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83년까지는 연간 181톤이었던 소비량이 '84년에는 63%나 신장된 295톤이었고, 85년에는 62%가 증가된 478톤, 86년에는 37%가 늘어난 655톤이 소비되었다. 이 물량을 원유로 환산하면 약 7천톤으로서 아직은 총유제품 소비량의 0.6%에 수준이건마는 지금과 같은 소비증가 추세로 나간다면 불원간 총소비량의 1%이상이 치즈로 소비될 전망이다.

근간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모기업체가 합작투자자로 치즈공장 설립계획은 추진하여 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더우기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대부분을 뉴질랜드에서 직접 수입한다는 소식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원유의 과잉생산과 유제품의 소비둔화로 그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 새해들어 원유의 생산량은 당초에 예상했던 물량을 훨씬 웃돌고 있는 반면 우유의 소비량은 계획량을 크게 밑돌아 유제품의 재고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원유의 생산 조절이라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듯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기에 국내의 기존가공시설과 기술로 충분한 양의 치즈를 제조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뉴질랜드와 합작하여 새로 공장을 짓고 대부분의 원료를 그 나라에서 수입해서 쓰겠다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들리는 말로는 합작투자자로 기술제휴를 하여 값 싸고 양질의 치즈를 생산 공급하게 되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국내의 우유잉여량의 처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지만 그와 같은 명분으로는 우리 낙농가를 이해시키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에서 값 싼 치즈 원료를 수입한다는 것은, 작게는 국산치즈의 기존시장이 하루아침에 수입제품에 침식 당하여 연간 약 1만여톤의 국내 원유 소비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크게는 우리나라 낙농의 육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계획의 깊은 속 사정을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남의 나라 농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몇년째 축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는 가난한 우리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차체에 정부는 정부의 진정한 낙농정책이 무엇인가를 우리 농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낙농정책이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지못하면서 낙농에 종사하기가 두렵기 한이 없다.